

과학기술문명과 프라그마티즘

“진보주의와의  
조화와  
균형기대”

蘇興烈

이화여대교수 · 과학철학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양적으로 해결하는 인류 역사의 진보를 약속한 사회주의 체제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 굴복하고 흡수되어 버리는 변화는 충격적이다. 사회주의는 끝났다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주의의 패배와 함께 역사에 대한 진보적 입장들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속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중국이 남아있으므로 유보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

동구의 여러 나라들도 제각기 상황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운명에 관한 것도 나라마다 다르게 진단해야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련의 장래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으로만 단언할 수는 없다.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사회주의의 실패는 어떤 것인가? 사회주의적 이상이 잘못된 것인가? 진보주의적 역사관이 잘못된 것인가?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이 잘못된 이상이었던가?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한다. 시장경제의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관료주의의 병폐를 낳은 것도 사회주의 체제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회주의권이 지향하는 변화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민주화로의 개혁이라고 한다. 이것을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의 탈바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버리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역사를 수용하는 입장이 된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 버린 것은 이런 변화를 말한다. 역사의 시대 즉 역사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의 시대도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변화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실패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이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체제와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이상은 아직도 유효하다. 자본주의적 병폐가 더 현저하게 노출될수록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뚜렷해진다. 사회주의적 해결방안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주의적 이상은 분명히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

종교적인 역사관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이상은 프롤레타리아를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중세의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실천하는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는 중세의 천주교회가 실패한 것과 같은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했듯이 프롤레타리아의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했지만, 그것을 대변해야 할 공산당이 중세의 천주교처럼 실패하고 만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실패는 자본주의체제와의 경쟁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패배했으며, 경제적패배의 원인이 된 것은 완전 통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병폐로 이해되었다. 사회주의적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했던 독재체제가 사회주의적 경제·정치·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제에서나 정치에서나 경쟁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위로부터의 완전 통제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의 세계를 발전적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역사의 진보에 지나치게 집념해 왔다. 이것을 역사주의적 집념이라고 한다면, 그 반면 사회주의 체제가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정치경제적 문제해결의 능력이었다. 사회주

의 사회자체가 당면하고있는 경제발전의 문제나 정치발전의 문제해결을 등한시해 왔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의 능력이야말로 자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문제해결에서 앞서가는 사람이나 남에게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고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제도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뜻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프라그마티즘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제도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프라그마티즘이 그 사상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는 역사주의적 프락시스에 집념하면서 프라그마티즘적 요인을 너무 등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프락시스와 자본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의 대결에서 프라그마티즘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충격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 직후에 폴란드의 어떤 경제학 교수가 한 말이다. 폴란드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로 바뀔 것이냐라는 것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그마티즘의 수용과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는 일이라고 했다.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쥐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면 된다는 비유로써 자신은 프라그마티스트라고 한 중국의 통치자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프라그마티즘을 배제한 결과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강점은 프라그마티즘의 힘이라는 뜻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에 못지 않게 충격적인 최근의 역사적 사건은 페르시아만 전쟁이었다. 이라크군과 다국적군과의 전쟁을 말하며, 소위 걸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다. 전쟁은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금까지도 자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미국과 이라크의 싸움이었으

며, 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평화’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오게 했다.

결프전쟁은 시작할 때부터 소련의 영향력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발발되었으며, 전쟁의 진행과정이나 종결의 방법 또는 전후의 문제에서도 미국이 독주할 수 있었던 미국의 전쟁이었다. 사실상 소련과 동구권이 체제 붕괴의 위기를 직면하면서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현실화하였던 것이다. 결프전쟁은 ‘미국의 평화’를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련이나 다른 어떤 세력도 미국의 독주에 견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다.

‘미국의 평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의 평화’에 도전하는 집단은 어떤 파괴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결프전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하나의 후세인이 나올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해 버린 것이다. 국토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후세인의 군대도 파괴했다. 몇십만 명의 이라크군이 죽었는지 정확한 보도가 없다.

결프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쟁과 전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전투가 없는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이한 전쟁이었다. 마치 바둑에서의 고단자와 초보자간에는 대결이란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전쟁무기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였다. 전쟁무기의 수준은 첨단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국과 이라크의 수준차는 과연 전쟁을 불가능하게 했다.

결프전에서의 일방적인 파괴와 살인은 서부영화의 장면을 연상하게 했다. 서구문명이 만들어 낸 무기를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 서부개척사는 언제나 ‘인디언들’이 대거 학살 당하는 전쟁으로 끝났다. 사실상 그것도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싸움이였다.

결프전과 서부영화의 또 한가지 공통점은 그러한 일방적인 파괴와 살인을 정당화해주는 홍보와 선전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서부영화는 온갖 이야기를 만든다. 서부영화를 제작하는 의도가 미국의 서부개척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프전에서도 미국의 방송매체는 후세인의 이라크가 철저히 과파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홍보기능을 했다. 서부영화에서 암암리에 설득하고자 한 사실이 ‘가장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었던 것처럼 후세인의 명령을 따르는 이라크 병사는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을 미국의 방송매체가 온 세상에 ‘보도’했던 것이다.

한편 월남전과 결프전의 차이는 전쟁의 도덕성과 관련된 차이에 있다. 월남전 때에는 현지의 미군 병사들에게까지도 그 전쟁의 도덕성이 문제로 느껴졌었다. 미국 국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계속되었었다. 그러나 결프전에서는 도덕성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언론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도덕성의 문제가 배제됨으로써 전쟁터의 군인들은 승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아도 좋은 전쟁이란 전적으로 전술과 전략의 문제로만 고려될 수 있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를 지향하게 하는 전쟁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파괴되느냐는 것도 문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적군을 어떤 방법으로 사살하느냐는 것도 문제시하지 않아도 되었다. 최후의 승리만이 문제가 되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전쟁에서는 어떠한 전쟁행위도 거기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철저한 프라그마티스트로서 전쟁에 임할 수 있었으며, 그런 뜻에서 결과적인 승리만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월남전을 치를 때의 미국 사회에는 도덕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의 소리가 미국의 양심노릇을 했었다. 결프전을 치를 때의 미국은 월남전에서 양심 문제를 다시 강요할 수 없는 집단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므로 결프전의 도덕성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했고, 전쟁의 진행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그 문제를 확인해야 했다. 월남전에서는 미국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겠으나, 걸프전은 도덕성을 문제시하지 않아도 좋은 승리를 가져왔으므로 월남전에서의 후유증까지도 씻어주는 환희의 승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최근까지도 걸프전의 승리를 자축하는 대대적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걸프전이 해결한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평화'가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한 '힘의 지배'를 뜻한다면, 우리의 세계는 오히려 걸프전에서 보여준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 때문에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 버린 것이 아닌가? 더욱이 그와 같은 힘으로 '미국의 평화'라는 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프라그마티스트들이라면, 오늘의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늑대와의 춤」이란 영화는 우월한 서구문명의 힘에 파괴당한 미국원주민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던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종래의 서부 영화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영화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도 서구 문명에 의한 지배의 역사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나간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그려준 것이다.

서구문명의 힘이 다른 문화권의 문명을 앞질러 가게 된 것은 불과 지난 200여년의 일이라고 한다. 이 짧은 최근의 세계사에서 '서구의 기적'이라고 할 문명의 비약적 발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서구의 문명을 우리는 과학기술의 문명이라고 한다. 과학적 탐구가 공학적인 기술의 개발에 응용이 되면서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힘은 서구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했으며, 그 결과에서 얻은 경제적 부는 서구의 과학기술문명을 더욱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서구의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해 온 역사는 과학기술의 힘이 지배해 온 역사이다. 문화적 가치나 인류적인 이상 따위는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다. 문명의 힘이 문화의 가치를 짓밟아 버린 현실

역사였다. 식민지의 역사가 그런 것이었고 서부 개척사가 그런 것이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서구사회 자체내에서도 적용되었다. 문명의 힘을 장악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힘의 논리란 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결과적인 승리만이 판단기준이 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철저한 프라그마티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문명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서구의 지배는 걸프전에서 그 절정에 이른 것 같다. '미국의 평화'는 고대 사회에서의 '로마의 평화'에 버금가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로마의 평화'가 스토이시즘에 바탕을 두었던 것처럼 '미국의 평화'는 프라그마티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유사하다. 그리고 로마의 스토이시즘이 그 당시의 역사적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이 오늘의 인류 역사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도 유사한 비교가 된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가 프라그마티즘의 승리였던 것처럼 걸프전의 승리도 프라그마티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를 확인한 사실 외에 걸프전의 승리가 해결한 것은 무엇인가? 중동문제는 서구의 지배라는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이다. '미국의 평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서구의 지배를 계승한 것뿐이다. 걸프전에서의 다국적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연합군이였다. 서구의 지배가 낳은 문제는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의 지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곳에 아직도 해방의 문제, 통일의 문제, 자립의 문제, 개발의 문제, 화해의 문제 등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의 역사가 인류사의 발전과 함께 진보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소련과 동구는 본래 서구에 속해 있었다. 자본주의의 서구역사를 진보적으로 변혁시키고자 서구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회주의의 동구와 소련이다. 만일 소련과 동구가 역사주의적 이상을 버리

고 서구에 영입되어 버린다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서구사회에서의 역사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의 서구로 돌아간 소련과 동구까지도 진보주의를 포기한 프라그마티즘의 사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는 곧 서구의 지배를 뜻한다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도 지배집단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된 것을 자축할지 모른다. 서구의 보수주의가 소련과 동구에까지도 확장되는 새로운 서구의 시대가 힘의 논리를 뜻하는 프라그마티즘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여기서 머물러 서있게 할 수 없다. 과학기술 문명의 힘이 프라그마티스트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서구의 지배를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프라그마티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미 그것은 통속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므로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통속적 의미란 전문철학적 개념의 의미와 같을 수 없다. 프라그마티즘을 퍼어스나 제임스나 듀이의 철학사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통속화한 프라그마티즘의 개념을 꼭 철학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철학사상으로서의 프라그마티즘도 퍼어스에서 시작하여 제임스를 거쳐서 듀이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가 애매하게 된 것이므로 누구의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한 의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철학사상적 개념이 통속적 개념의 의미에서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

퍼어스의 프라그마티즘은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모형으로 한 진리확인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사실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일반화한 사실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법칙적 사실, 원리적 사실 또는 이론적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조건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과학적 탐구에서는 그것을 가설적 믿음이라고 한다. 법칙이 될 수 있는 가설 또는 법칙보다 더 일반적인 이론으로 확립될 수 있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근거에 관한 것

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가설은 그것이 함축하는 결과를 확인해 봄으로써 진리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결과주의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퍼어스의 프라그마티즘이 제임스에 와서는 실용적인 결과 또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진리라는 의미로 변질된다. 진리이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과 실용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의 가설이 함축하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가설의 진리 여부를 가려내는 사유 방식 또는 논리의 특수성 때문에 퍼어스는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추리방법을 생각해 내기까지 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탐구의 논리라고도 하고 검증의 논리라고도 하는 복합적인 추리의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퍼어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진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사실이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그런 탐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객관적 진리를 확인해 가는 인간의 사유방식을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개념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임스에게서는 진리의 객관성이 약화되고 주관적 믿음이 강조된다. 물론 주관적으로 믿는 진리가 객관적 진리와 일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관적 믿음의 근거를 실용적인 결과를 둠으로써 진리의 상대주의화를 가능하게 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거짓말도 결과만 좋게 된다면 진리가 된다는 자기당착적인 주장도 제임스의 프라그마티즘에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의 프라그마티즘이 ‘실용주의’로 번역된 것은 이런 뜻에서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프라그마티즘을 통속적으로 이해하는 의미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제임스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임스를 통하여 통속화한 프라그마티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실용주의로서의 프라그마티즘은 진리의 탐구 자체보다 그것의 응용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순수과학적 탐구 또는 진리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위한 탐구보다는 탐구결과의 응용적 가치 또는 공학적 가치에 비

중을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왜 과학적 탐구를 지원하느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가치관이다. 예컨대 정부나 기업에서 과학적 탐구를 지원하는 것은 그 결과의 응용 가치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과학적 탐구의 과제는 그러한 지원 동기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 반면 탐구의 동기가 강화될 수 있으며 순수과학적 탐구과제와는 다른 폭넓은 응용과학적 탐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용주의로서의 프라그마티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의 기적을 낳은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는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이 그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임스의 프라그마티즘은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주도하게 한 미국의 실용주의적 풍토를 잘 반영해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실용적 결과에 의거해서 평가된다면, 그러한 믿음의 가치란 도구적 가치가 되고 만다. 프라그마티즘은 도구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라그마티즘을 도구주의로 받아들인 것이 듀이의 사상이다.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구별될 수 있지만, 도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도구적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중요시 하는 것이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뜻이다.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American Ingenuity라든지 American Know-how라는 것은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한 고안능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풍토를 대변해 주는 것이 듀이의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고안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 미국이다. 자유경쟁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며, 누구나 자기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미국의 사회 풍토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자든 패자든, 성공이든 실패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 풍토에 수반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간의 고안능력을 경쟁하는 시

험장이 되고 있다. 그런 경쟁에서 승리한 과학기술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의 가치란 도구적 가치이다. 문명의 발달은 도구적 가치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도구화하여 생각하는 풍토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구문명이 지배적 힘을 갖게 된 것도 일찍부터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따른 사회·정치·경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오늘의 동구가 서구에 뒤떨어지게 된 것도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이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고안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도구주의적 제도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을 수 있는 것이면 좋다는 생각은 실용주의적 발상이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도구주의적 발상이다. 도구주의적 발상은 경쟁을 통한 능력의 향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주도하게 된 미국의 풍토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은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위해 경쟁하는 서구의 제국들과 그들을 뒤쫓아가는 동구의 제국들, 그리고 그 경쟁대열에는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의 도입에 급급한 제3세계의 나라들은 모두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을 수용하고 있다. 문명의 힘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의 현실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명의 힘에서 낙후된 민족과 국가는 강대국의 식민지화한 쓰라린 역사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구주의는 문명의 힘을 개발하게 하는 힘의 지배를 표방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고대의 노예제도가 그러했고 현대의 식민지정책이 그러했다.

‘미국의 평화’는 물론 패자를 노예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로마의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힘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는 점에서는 ‘로마의 평화’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노예화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3세계의 약소국들을 도

구화할 수 있는 프라그마티즘을 그 사상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경계심을 갖게 한다.

결프전쟁은 컴퓨터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한다.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대행자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과학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가 된다. 결프전쟁에서의 일방적 승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술무기에서의 월등한 우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는 본래 인간의 도구로서 개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대행자로까지 발전한 컴퓨터는 이제 단순한 도구라고만 할 수는 없다. 여전히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는 사용자와 도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행자의 기능을 하게 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노예 제도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이제 컴퓨터라는 충실한 ‘노예’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의 대행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런 컴퓨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나아가서 컴퓨터를 대행자로 사용하는 도구주의적 사고는 곧 인간을 대행자로 사용하는 도구주의적 사고와 혼동될 수 있다. 특히 컴퓨터에 의한 대행자의 기능이 복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인간이 그 복합체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므로 인간이 컴퓨터의 대행자가 되는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인간은 주인이고 컴퓨터는 충실한 노예라는 주종관계가 전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간이 인간을 도구화하는 도구주의적 사고가 일반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프전쟁은 컴퓨터가 대행자역할을 한 전쟁이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컴퓨터를 이용한 복합적 전술체계에서 인간도 대행자 노릇만 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결프전쟁은 끝났지만 지금은 ‘미국의 평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로마의 평화’라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군대가 곳곳으로 파견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미국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주둔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평화’라는 새 질서를 지켜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의 대행자 기능에 의존하는 복합적 전술체계에서 주둔 미군이란 하나의 부분적 대행자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를 위해 그러한 부분적 대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3세계의 지배 집단도 포함된다.

‘미국의 평화’에 순응함으로써 정치 경제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3세계의 지배자들은 ‘미국의 평화’를 지키는 대행자들이다. ‘미국의 평화’를 수용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프로그래티스트라고 자처한다. 현실적으로 자기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장 유용한 길을 선택한 실용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프라그마티즘은 도구주의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갖는다. 그것도 지배자의 도구주의가 아니라 피지배자의 도구주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피지배자의 도구주의란 곧 힘에 의한 지배를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것이며, 그 힘의 보호를 받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 우선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자기네 국민과 사회에 대하여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지배자의 도구주의를 적용하게 된다. “힘이 곧 정의”라는 현실주의를 지배자의 입장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개혁이나 역사의 진보보다는 권력 유지를 위한 힘의 사용이 더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강대국에 대해서는 충실한 대행자가 되고,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보적 개혁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폭군으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과학기술의 힘과 도구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은 제3세계에서의 독재자와 현실주의를 낳게 한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도 제3세계에서는 ‘미국의 평화’를 받아들인다는 표방의 의미밖에 없다. 강대국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독재체제 아래서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의 진보를 뜻하는 제3세계이므로 민주화를

탄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표방은 자가당착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실용주의와 도구주의로 이해되는 프라그마티즘은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 질서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과학기술 문명에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구의 지배를 영속화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라그마티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지배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지배관계가 부당한 것은 강자가 약자를 도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주의로서의 프라그마티즘은 그러한 도구화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프라그마티즘만으로는 안된다. 역사의 진보를 위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현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중요시하는 프라그마티즘만으로는 안된다.

과학기술 문명의 경쟁은 프라그마티즘의 수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의 위력이 프라그마티스트에 의해서만 무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걸프전에서의 파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실용주의자와 도구주의자들만이 '미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게 되면, 역사에 역행하는 파괴가 자행될 수 있다. 인류를 위기와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치는 엄청난 파괴가 자행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파괴의 직접적인 희생자는 제3세계가 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이 땅 위의 인류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역사의 진보는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찬란한 과학기술 문명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구사회의 낙오자들, 서구의 대항자들에게 억눌리고 빼앗기는 제3세계의 민중들, 성차별을 당하는 여성들,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은 우리시대 역사의 진보를 뜻한다. 진보의 소리는 낮은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솟아나오지만, 그 소리의 고명은 높고 밝은 곳에서 퍼져나가야 한다.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문명의 힘으로 오늘의 질서를 지켜가고자 하는 프라그마티즘은 역사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프라그마티즘만으로는 안된다. 프라그마티스트 서구만으로는 안된다.

◇ 이 글은 지난 8월21~24일 열린 한민족 철학자대회에서 「과학기술혁명과 인간의 삶의 환경」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전재한 것임.....편집자

### 깨끗하고 경제적인 廢棄타이어 處理法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의 헌 타이어 처리 방법을,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이, 영국에서 갖 가동하기 시작한 한 공장에서 시범되었다.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하웰 연구소의 AEA Industrial Technology 가 설립한 熱分解 공장은 폐기 타이어를 여러가지 유용한 재료로 재생할 뿐아니라

에너지까지 회수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타이어 처리방법보다 깨끗한 배기가스를, 그것도 덜 배출한다고 한다.

원래 有機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이 열분해 시설은 금속같은 무기재료도 처리할 수 있는데, 고열작용으로 화학분해를 일으키는 과정인 열분해를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타이어의 열분해로 나오는 기름과 가스는, 식물의 비료로 쓰거나, 결합하여 열 및 동력시스템에 사용할 수도 있다.

AEA Industrial Technology사는 여기서 생산되는 연료와 기타 재생산물의 견본을 만들고 있는데, 벌써 북미, 인도, 헝가리 등에서 라이선스 교섭이 들어오고 있다.

1년에 약 1,000t의 타이어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이 원형 공장은, 耐火爐, 컨테이너, 가스洗淨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